

대학생의 떡의 인지도 및 떡 구입시의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

노 정 옥* · 우 경 자

인하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의 떡의 인지도 및 떡 구입시의 품질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여 떡의 섭취 확대를 위한 방안제시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의 목적으로 인천지역 302명의 대학생의 견해를 조사한 것이다. 통계처리는 SPSS 10.0 Program을 사용하였다.

1. 조사대상은 남학생 69명(22.8%), 여학생 233명(77.2%)였으며 남학생 평균연령은 23.7, 여학생은 20.8세였다. 학생들의 거주상태는 남녀학생 모두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출생지는 남녀 학생 모두 서울 출생자가 가장 많았으며 주 성장지는 대부분 경인지역이었다.
2. 떡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대학생들의 떡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자주 섭취하는 떡의 종류는 제한되어 있었다. 90% 이상의 대학생은 백설기, 가래떡, 절편, 팔시루떡, 인절미, 송편, 경단, 빈대떡을 알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무지개떡, 개피떡, 화전, 호박떡의 순으로 알고 있었다. 잘 모르고 있는 떡은 구름떡, 색단자, 장떡, 팔수수부꾸미, 두툽떡의 순이었으며 개성주악, 석이병, 승점초편이 가장 낮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자주 먹는 떡으로는 가래떡, 인절미, 송편, 약식의 순이었다.
3. 떡의 구입방법조사 결과 52.2%의 남학생은 집에서 직접 만들거나 또는 떡집에서 사온다고 하였으며 56.7%의 여학생은 떡집에서 구입한다고 하여 외부에서 구입하는 가정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4. 떡을 먹는 빈도는 대부분의 남학생(66.7%)과 여학생(67.8%)이 한두달에 한두번 정도 먹는 것으로 떡의 섭취빈도가 낮았다. 떡을 먹는 기회는 남녀 학생 27% 이상이 명절날에 떡을 먹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삿날, 결혼식에 떡을 먹었다.
5. 떡을 식사대용으로 먹는 경험을 조사한 결과 간식으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떡을 먹는 경험이 있으며 떡과 함께 먹은 것으로는 물, 김치, 과일류, 청량음료, 한국전통음료인 식혜, 수정과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6. 떡을 구입할때의 품질을 평가한 결과 가격, 포장, 위생, 떡의 종류, 개별포장, 서비스에는 대부분 만족하고 있으나 떡의 영양적인 설명의 부재, 떡의 양, 떡집의 분포 및 떡집

의 전체적인 분위기에는 불만족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아 대학생들의 떡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떡의 품질향상은 물론 쉽게 떡을 섭취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학생의 취향에 맞는 떡의 개발, 양의 조절 및 포장재의 개발로 구매의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 식당 또는 휴게소 등의 학교안에서의 판매를 통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로 인스턴트식품으로 섭취하던 간식을 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대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의 유지 및 전통식품인 떡의 섭취확대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사료된다.